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항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무엇?	추천 책의 출판사는	추천 책의 지지는 누구인가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강원지부	작은도서관 caru	이선미	알레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	(주)스리채이스	최연혁	우리에게도 축제같은 정치가 필요해요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경기북부지부	강촌공원 작은도서관	김희정	민주주의의 정원	웅진지식하우스	예력 리우, 닉 하나우어 (김)	"우리는 서로를 형성한다. 그리고 서로의 선택에 묶여 있다.... 우리가 이를 인지하기 시작한 이상 우리는 좀 더 큰 책임감을 짊어져야 한다. 모든 것에 대해 말이다" (87쪽)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경기북부지부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박미숙	남안하는 공동체 넘어서기	알렐	이대영, 신승철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는 민주적인가? 남안하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경기북부지부	화전작은도서관	황보진	진보와 반군	비룡출판사	헨리 조지	부와 특권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발생하는 죄악과 비참함을 보면서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를 위해 노력하려는 독자들에게 바친다.-헨리 조지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경상지부	한국작은도서관	김정진	민중의 이름으로	녹색평론사	이보 모슬리	민주주의의 출발이냐 발전은 민주적인 것과 거리가 있어 씁쓸했어요. 언제나 민주주의를 꿈꾸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건 당연했나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결국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의견을 의인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광주지부	책들이도서관	최혜연	사회를 달리는 심대-사회, 문화	우리학교	황정숙 송현정 옹진환 이상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경험한 '의식함'을 토대로 세상을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것 너머를 보려 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세상은 불가능한 꿈이 될 것이다.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대구지부	그나라어린이도서관	구한나	생태민주주의	한티재	구도환	소통하고 속의하고 행동하는 정치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대구지부	그나라어린이도서관	이춘미	유월의 중이비행기	마주별	최은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어린이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편찬됨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대구지부	마을도서관햇빛따라	이옥희	주인의 헌법	메가스터디북스	박주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대구지부	해복작은도서관	이수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김영사	유발하라리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원형 위에서 있다. "모든 국민은 잠시 속일 수 있고 일부 국민을 늘 속일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을 늘 속일 수는 없다. 정부가 부패해서 국민 생활을 개선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정부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링컨의 논리는 힘을 잃는다. 시민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이다. 집권 과두제는 언론 독점을 통해 모든 정책 실패를 반복해서 남 탓으로 전가하고 국민의 관심을 외부 위협-상계든 상상이든-으로 돌릴 수 있다. "빈곤과 폭력 악몽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적으로는 1차대전과 히틀러의 망령정책을,대한민국의 과거에서는 권력과 일반백성들의 유리된 삶의 대행진을 해야만 했다. 그것은 모두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행진이었다.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서울동부지부	차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이	김여숙	부리동을 출입금지	친개의 바람	소피 레스코	민주적인 모두의 해법을 바라며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서울동부지부	차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이	유희경	법 만드는 아이들	한국경제신문	육옥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과 정치를 교실속해 녹여내어 풀어낸 이야기는 어려운 역할의 의미와 용어의 의미가 이토록 재미있고 이해가 쉬운 것이었나 실을 정도였습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가 읽기에 너무 좋습니다.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서울동부지부	차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이	채지혜	독재와 민주주의	가고출판	정관성	이 책은 12-15세의 '에비 민주 시민'을 위한 현대사 여행서입니다.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서울서부지부	대조곶나무어린이도서관	채정숙	나도 투표했어!	토도북	마크 슬먼 글, 세르주 블로	투표의 의미, 과정, 결과까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는 지식그림책이다. 어렵게 느껴지는 민주주의, 선거, 다수결 원칙 등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여 설명하는 짧은 글과 그림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족이 함께 읽고 투표소에 함께 간다면 더 의미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서울서부지부	구곡리 성산골마루작은도서관	백현진	POST-TRUTH(포스트 트루스)	두리반	리 앤타이어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인 거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들만 듣고,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무시하는 편향적 자세를 견지한다.				
							"마를 번투리에 사는 착한 은색사자 알리아 친구를 때리고 먹을 것을 빼앗았다는 소문 들었는데 설마 아니겠나?" "은색 사자가 실은 난폭하다며?" "듣자하니 은색사자가 내던진 상대가 입문했다나 안했다나....." "그리고 보니 마를 광장에 구금자가 서있었어. 혹시 그게 그거 었나?"				
							본문 중에서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금색사자는 목욕재계 할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은색사자가 왕이 될까봐 두렵다. 금색사자는 거짓 소문을 만든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왕 속의 동물은 매일 만드는 거짓말에 모두 같은 소문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은색사기 시작한다. 설마가 진짜? 이제 굳이 금색사자가 말하지 않아도 소문은 눈덩이처럼 부풀어 퍼져간다. 율리미 아중마가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소리쳐도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버려 은색 사자는 더 이상 존경 받지 못하고 쓴 웃음만 지을뿐이다.				
							왕이 되어버린 금색사자는 이제 숲이 자기 것이 된다. 왕이된 사자는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정 황폐해져가는 숲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동물들은 은색사자를 그리워 한다. 이전 후회해도 소용없다.				
							누구의 잘못일까? 첫째 금색사자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 정적을 거짓으로 몰아 제거했다.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 다른 것에 때에는 안중에도 없다. 무책임한 이기주의이다. 금색사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 오히려 이렇게 쉽게 속아준 어리석은 동물들을 비롯하여 성공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 믿을 것이다. 낮은 자존감이다. 은색사자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금색사자도 자신만의 장점이 있을 것이다. 자존심과 높은 금색사자는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았다. 자존감이 낮은 것의 특징은 다른 이를 부러워하며 자신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상대를 깎아내린다. 자존심의 상처가 극단적으로 상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뺨뺨어진 마음이 생긴다.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서울서부지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우미선	그 소문 들었어?	친개의 바람	하야시 글린 글/소노 나오키	둘째, 속속의 동물들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는 그저 은색사자를 조심하려 했을 뿐이야" "나는 그저 걱정이 되서 친구들에게 알려준 것 뿐이야." "나는 그저 들은 이야기를 문자로 전달했을 뿐이야." 처음부터 나쁜 마음은 없었다. 그저 걱정이 되서 이야기 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저 보냈을 뿐인데 라며 타인의 탓을 한다. 소문에 관한 유명한 실형이 있다. 그것이 거짓이면 사실이든 중요하지 않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중독된 동물들은 부풀리고 부풀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겨내는 순간이다.				
							거짓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 불안은 가짜를 만들어 낸다. 중국에 마스크를 다 주어서 우리나라에 마스크가 없다 휴지가 마스크 대신이니 사재기 해야 한다. 여기저기 넘쳐나는 거짓말 마치 사실처럼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선별하고 진실을 찾아내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유리한 소문이 세상을 바꾸어 버릴 때도 있지. 그러니까 몇번을 확인해야 해. 저 높이 솟아 있는 산은 정말로 산일까? 이 강은 영동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을까? 모두가 걸어가는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본문중에서				
							"소문은 슬그머니 다가 오지만 진실은 스스로 나서면 찾을 수 없어."				
							본문중에서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서울서부지부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이해숙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	봄봄	재임수 서비(글), 윤주희(그)	왕이 되기 위한 처절한 싸움에서 과연 진정으로 필요한 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책입니다.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울산경주지부	문수산더삼작은도서관	문신영	아파트 민주주의	이상북스	남기업	결국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 주체자들의 갈등과 분쟁은 결국 '개혁'이라는 두괄자로 결론이 내려진다.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인천지부	꿈나라어린이도서관	안은경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를 가꾸	주니어김영사	임현정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책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권미향	만약에 내가	물빛	장덕현 글/윤미숙 그림	"나만 아니면 돼" 방관자로 살다 다음은 내차례, 어떤 리더를 뽑아야 하는지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항을 알려주세요(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무엇?)	추천 책의 출판사는 추천 책의 지자는 누구인가?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김경숙	오월의 주먹밥	한울림어린이	정란희	[이 땅의 민주주의에게 전해주어야 할 주먹밥이었다.] 다른 어떤일도 할 수 없는 남겨진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에 가슴아팠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사회가 더 큰 슬픔으로 다가온다.		
3월의 주제 <알아야 아는	인천지부	콩세알도서관	국향미	아빠, 왜 히틀러한테 투표했어	볼나우	디디에 데냉크스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 세상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사우국	사우국	신현미	생각의 지도	김영사	리처드 니스벳	태도, 신념, 가치, 선호와 같은 심리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문화간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생각의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함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사우국	사우국	김진희	좋은 기분	복스톤	박정수(복씨)	일과 삶에 대한 태도를 '좋은 기분'이란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 줍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마음을 찍 읽는 내내 들게 하는 건 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사우국	사우국	박이숙	책개인시대	교보문고	송길영	책은 읽고 나면 생존만이 목표가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 다양한 수다가 필요해보인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사우국	사우국	이은주	각각의 계절	문학동네	권여선	각각의 계절을 내려면 각각의 힘이 들지요...라는 문장으로 이 시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힘이 들지만, 각각의 힘을 잘 배분하고, 버티고 이겨내는 이 시간과 계절이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동부지부	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늘지	문혜영	앵무새 죽이기 그래픽 노블	미메시스	하파 리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자기 재능을 자랑하지 않는단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작은여우도서관	송정화	오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세	빅피시	임소미	세계사의 큰 흐름(문명사, 전쟁사, 잔혹사 등)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유익하였음.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하랑작은도서관(울산)	배수경	너를읽는순간	푸른책들	진희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당하게 이야기하는게 어른들과의 공감하기 좋은 책인것 같았음.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김경숙	오리건의 여행	미래아이	라스 칼	우리속에 갇혀서 재주를 부리는 서커스단의 공이 고향으로의 여행을 합니다. 기차를 타고, 걸어서, 먼 꿈속에서 보았던 숲으로 돌아옵니다. 오리건을 위해 약속을 지킨 날, 더이상 서커스단의 난장이가 아닙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충청지부	푸른작은도서관	김하루	평범한 인생	엘린책들	카렐 차페크	평범해 보이는 인생의 이면에 자리 잡은 여러 인격의 존재가 어찌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모자이크 된 자화상이 아닐까 한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충청지부	푸른작은도서관	오경자	건지감자감질 파이 북클럽	비전비엔피/이엔슬	메리 앤 새퍼, 이니 배로스	지난 3월 첫번째 수요일에 모어서 우리 회원들은 연간 아니 우선 한 학기동안 읽을 책을 정했음. 책 <건지감자감질파이 북클럽>은 첫번째 책이니 만큼 재미있는 주제로 정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여 쉽게 됨. 이 책에 관해 회원들이 2시간 동안 감상 내지 재미, 좋은 문구, 당황스러운 장면 등 함께 나눈 것을 아래와 같이 요약함 첫째, 2차 대전동안 영국보다 프랑스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채널제도(Channel Islands)'를 포기(독일에게 고스란히 넘김)하면서 일어났던 당시 전시 상황을 알게 되면서 이 지역을 직접 가보고 싶은 정도의 새로운 관심이 썩뜸. 둘째, 영국왕실의 영토 '채널제도'에 얽힌 이야기 : 바이킹의 프랑스 침략, 바이킹의 후손 윌리엄의 영국 정복, 현재 영국 투표권이 없는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이킹, 영국, 프랑스 간에 얽힌 역사 공부를 하고 싶었음. 셋째, 독일군 몰래 주민들의 '돼지구이 파티'에서 <건지 감자감질파이 북클럽>이 탄생된 동기, 실제 활동 등을 통해 누구라도 전시상황에서조차 '독서'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줌. 넷째, 책속의 인물들(건지감자감질파이 북클럽 회원들)이 읽고 위안을 받았던 명작(셰익스피어 작품, 반다의 일꾼들,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오만과 편견, 세네카의 시간집, 찰스 킹 수필 등) 들을 다시 읽고 싶은 욕구가 생김. 이 책읽기 후 곧바로 <찰스 킹 수필선>과 세네카의 <화에 대하여>를 구매하게 됨 다섯째, 이 책이 어떻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음. 독자들에게 인기를 누렸던 이유를 찾자면 책이 흥미로운 것 같음. 2차 세계대전동안 적과의 로맨스, 잔혹한 실상 등 많은 다양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볼때 이 책은 독특(unique)한 전시상황과 책속의 인물들 (실제 독서를 좋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닌 북클럽 회원들;)일 것 같다는 생각임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호남지부	하늘을나는도서관	노소희	랑과 나의 사막	현대문학	천선란	그림에는 감정이 들어가서 사진에는 의도가 들어가서. 감정은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의도는 해석하게 만들어.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한다는 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인간은 정지해 있는 그림 보고도 파도가 친다고, 바람이 분다고, 여인들이 웃는다고 생각하지. 사진은 현상 전후를 추측하게 하지만 그림은 그 세계가 실재한다고 믿게 돼		